> **********
> 새시대 교수법 174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/ 조벽 Peck Cho
> **********
>
> 벤치마킹 3.
>
> 우리는 한 때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. "우리 학과에서 유체역학 실험
> 과목을 신설하자는 제의가 있습니다." "아 그래요? 실험 내용이 학생들에게 얼마
> 나 필요한가요? 담당할 교수님은 확보하셨습니까? 교과과정 어느 부분에 속하게
> 됩니까?" 그리고 한참 후에 예산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.
>
> 그러나 지금은 첫 마디부터 돈입니다. "아 그래요? 실험실 꾸미는 데 돈이 얼마나
> 필요한가요? 외부 지원금을 확보하셨습니까?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?"
>
> 교육기관에서 마저 모든 대화가 돈으로 직결되는 듯합니다. 마치 돈(자금) 자체가
> 최고 목표가 되어 가는 듯 싶습니다. 모든 것이 돈으로 축소되고 정량화되어 가
> 는 추세는 벤치마킹이 설치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적의 환경입니다. (지난 호
> 에 벤치마킹 자체가 축소지향적이며 정량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) 기업 도구가
> 교육 영역에 들어와서 판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
> 되어버린 세상이 온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
>
> 가장 큰 이유는 시대 이동에 따라 교육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.
> 구시대에는 아이가 대 여섯 살 때 학교에 입학하여 초중고, 또는 대학을 졸업하
> 는 동시 정규 교육은 끝났습니다. 정부가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정규 교육에
> 시작과 끝이 확실하였고 시기도 짧았습니다. 하지만 '평생교육'이나 '학습사회'
> 라는 단어들이 우리 귀에 익숙해진 새 시대에는 국민 모두가 교육을 죽을 때까지
> 받아야 하는 세상입니다. 사회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.
>
> 직장인들이 이미 직업을 평균 네 번 바꾼다는 통계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
> .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직장을 바꾸는 것과 달리 재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
> . 그러나 고용성(employability)은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. 만일 취업 후 계
> 속(성인) 교육의 기회가 없으면 실업자들이 늘 것이며, 여자들도 점점 더 많이 노
> 동 시장에 뛰어 들게 되어 남성 실업자의 수가 높아질 것입니다. 사회 불안정이
> 위험 수위에 가까워지는 첫 신호입니다.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재교육에 점
> 점 더 깊숙이 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무엇이 '정규' 교육이고 무엇이 '계속'
> 교육인지 차이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.
>
> 하지만 정부가 걷은 세금으로 초중고 교육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 마당에
> 무슨 수로 국민의 교육을 평생 동안 감당하겠습니까? 뻔하지 않습니까. 교육을
>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자니 돈 쓸 곳은 늘어나고, 그러나 돈은 자꾸 옆으로 세어
> 나가고.... 결국 공교육 기관마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
> 는 압력을 점점 더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. 교육기관은 백년대계 장기전을 치른
> 다는 생각보다는 한 해 한 해 예산을 빵구 내지 않고 넘기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
> 게 됩니다. 교육기관에서는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예산(돈)을 고려하게끔 됩니다
> . 불행하게도 교육기관 마저 '돈 우선 주위'가 판치게 됩니다.
>
> 그러나 교육기관이 기업화/상업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은 아닙니다. 교육
> 기관이 점점 돈을 숭배하게 되는 이유는 정부가 새 시대의 특성을 아직도 제대로
>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을 '정책'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교육을
> 국민의 취업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5T, 6T산업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정책으로만
>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정규 교육은 망가지도록 해놓고 재교육에 집중 투자
> 하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. 새 시대에 걸맞은 전국민적 교육 '
> 전략'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.
>

> 벤치마킹? 한국에 벤치마킹이 가장 시급한 기관은 정부기관이라고 생각되는군요.
>
><<잔소리 코너>>
> 이공계 기피에 대한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.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게끔 정책
> 을 펴놓고 대책 세우느라 분주 하는 것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요.
>
> ⓒ 조벽, 2002